

“신인처럼, 그림으로 세상과 다시 겨뤄야죠”

신경호·정인수 동갑내기 부부 '교수' 직함 벗고 새로운 여정

중학생때 학교 대표로 첫 만남
우연한 선 자리서 결혼 약속
신 교수 '넋이 라도 있고 없고'
'5공'때 불온작 낙인 찍히기도

정년퇴임 기념 ‘...동행’전
2월 5일부터 금호갤러리



정년 퇴임을 기념해 오는 2월5일부터 제자들과 함께 전시회를 여는 신경호 전남대 교수와 정인수 교수가 담양 달미미술관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연이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 열린 적십자 행사에서 각 학교 대표로 처음 만났다. 이후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 진학해 미술을 공부했고, 교류전에서 작품으로 교감하며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갔다. 부모님들이 마련한 선자리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또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남편은 “가난한 화가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3번 물었고, 아내는 단박에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1976년 결혼한 둘은 그렇게 부부로, ‘화가’와 ‘교수’라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인생의 조연자로 40평생을 함께해왔다.

49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신경호(65) 전남대 미대 교수와 정인수(여·65) 전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얘기다. 두 사람이 ‘교수’라는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 한 정 교수에 이어 오는 2월 신 교수가 대학 강단을 떠난다. 신 교수는 39년간, 정 교수는 28년간 대학에 몸담았다. “비로소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또 한번의 행복한 기회를 맞은 것 같다”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흥겨운 마음으로 말한다.

28일 이른 아침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담양 창평면을 찾았다.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미국

하버드대학 방문교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이곳에 작업실을 만들었고, 둘째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거처를 옮겼다. 공장에서 쓰던 낱직한 가건물 형태의 기숙사 건물을 옮겨와 중앙에 서재와 거실을 두고 양쪽으로 각자의 작업실을 만들었다.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니 작은 불편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에는 집 옆에 조그마한 ‘달미미술관’ 개관했다.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면 일직(一직 정 교수의 호)은 ‘이타적’이다”라는 신 교수의 말처럼 짧은 대화에서도 두 사람의 판이하게 다른 성격이 묻어났다. 예술적 개성도 교육적 철학도 다르다. 교수로 일하면서도 신 교수가 ‘호랑이 교수님’으로 불리며 제자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한 것과 달리 정 교수는 칭찬으로 일관했다. 신 교수는 “제가 짜증날 정도로 학생들에게 잘 해줬다”고 표현했다.

신 교수는 부친을 똑 닮은듯했다. 신 교수의 부친은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1년9개월 봉사했던 고(故) 신정식 박사다. 신 박사는 오방 최흥중 목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소록도의 슈바

이치’로 불리기도 했다. ‘호랑이 교수님’에게도 대학생활 동안 두 가지 아픔이 가슴에 각인돼 있다. 신 교수는 학생들을 많이 채찍질했다. 따뜻한 말보다는 호통이 앞섰다. 지나고 나니 ‘조금더 잘해줄걸’이라는 후회도 든다. 하지만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세상을 담은 작가가 되려고 강조했다. 신문 칼럼을 가지고 미대 수업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신 교수는 “책과 신문을 읽고, 시대상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며 “단,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한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발표한 ‘넋이라도 있고 없고’가 ‘빨갱이 그림’으로 몰리면서 그는 불온작가로 낙인 찍혔다. 당시 문교부에서 대학으로 공문이 왔고, 그는 작품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했다. ‘목구멍이 포도창’이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당시의 공허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며 “긴 시간 잘 놀았다”고 웃었다.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지 못했던

정 교수는 평생 수업 시간 전에 강의실에서 먼저 학생들을 기다렸다. 항상 칭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우연히 신 교수의 학생들을 한차례 가르치게 된 적이 있었다. 강의실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했고, 스승을 향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내가 너무 학생들을 자유롭게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본인의 교육 철학에 대한 후회는 없다. 아직도 스승의 날 한 학생이 건넨 신문에 써인 들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광주교대 대학원장으로 일하면서 학생회관에 벽화를 그리고, 학교 건물 전관에 학생들의 작품을 건 것도 소중한 기억이다.

정 교수는 “성격은 다르지만 대통령 선거와 민주화 운동 이야기만 나오면 자연스레 의기투합을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명했다. 두 사람 모두 “10년간 화단에 처음 데뷔한다는 각오로 작품을 하겠다”며 “그림으로 세상과 다시 한번 겨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는 2월5일부터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정년 퇴임을 기념해 ‘삶과 예술, 그리고 동행’전을 연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의 제자 90여 명이 함께한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인 DB

검색 상세 작품검색

구한말부터 1950년생까지 전남 예술인 1300명 망라

전남문예재단, DB 구축 완료

전남 출신 예술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전남 문화예술인 DB서비스’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홈페이지(<http://art.jncf.or.kr>)를 운영 중이다.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초 문화자원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광주문화발전소(대표 지형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

데이터 베이스에는 구한말부터 1950년생까지 예술인 1300명의 생애와 예술 세계, 대표작 등이 실려 있다. 장르는 무형문화재(195명), 미술(438명), 문학(225명), 국악(121명), 음악(61), 대중예술(45명), 사진(47명), 무용(17명), 연극(14명), 건축(9명) 등 모두 10개다. 광주·전남이 걸리지기 전에 활동했던 이들 중심이라 광주 출신 예술인들도 함께 수록됐다.

각 분야별로 등재 기준을 마련했다. 문학은 광주·전남 문학상 수상, 또는 신춘문에 당선자로 작품집을 발간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미술은 광주미술대전 추천·초대작가에 준하는 경력자로 개인전 개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강화해 인명 이외에도 장르나 키워드 등으로도 관련 예술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에서 누락된 예술인이나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 예술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mtong@hanmail.net)이나 우편(무안군 삼향읍 후광재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로 보내면 된다.

김종경 전남문예재단 사무처장은 “이번에 구축한 자료들은 사라지고 있는 전남의 방대한 문화 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남도문화 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062-280-58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는 2015년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분야는 판소리, 고별, 민요, 한국무용, 장고, 다문화반이며 각 분야별로 선착순 20명씩 모집한다.

강사는 김찬미(제13회 임방울국악제 대령상 수상), 김준영(풍물연희단 광대), 임영일(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별 이수자), 김영자(전국예술경연대회 대령상 수상), 주순호(제12회 임방울국악제 대령상 수상), 김양희(예향문화창작예술단 수석)씨 등 각 장르의 전문가들이 맡는다.

강습은 분야별로 주 1회 2시간씩 진행하며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 장소는 광주공원 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 시민체험장이다.

수강 신청서 접수는 오는 2월 10일, 강의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521-0731 ~ 2. /김미은기자 mekim@

이모가 우리 엄마 해줄래?



전남문인협 임춘임 시집 펴내

전남문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임춘임 시인이 시집 ‘이모가 우리 엄마 해줄래?’(한림)를 펴냈다. 작품집에는 일상에서 걸어 올린 소박한 언어와 정감어린 시심으로 형상화한 시 81편이 수록돼 있다.

이색적인 제목의 표제시 ‘이모가 우리 엄마 해줄래?’는 시인의 경험을 토대로 형상화한 시

다. “네 살/ 꼬마가 다가와/ ‘이모가 우리 엄마 해 줄래?’ 했다/ 아빠랑 동생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이모가 우리 엄마 해 줄래?’ 했다” (‘이모가 우리 엄마 해줄래?’ 중에서)

시인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다. 가슴으로 낳았을 뿐이다. 처음 선을 보던 날 네 살짜리 꼬마가 “이모가 우리 엄마 해줄래?”라고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언젠가 시인은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며 눈물을 쏟

았다.

시집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이 담겨 있다. 세상의 여느 어머니들과 같은, 그보다 더한 자식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표현돼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임 시인은 지난 2007년 ‘시사문단’에 ‘내 마음은 나비’로 등단했으며 장성문협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